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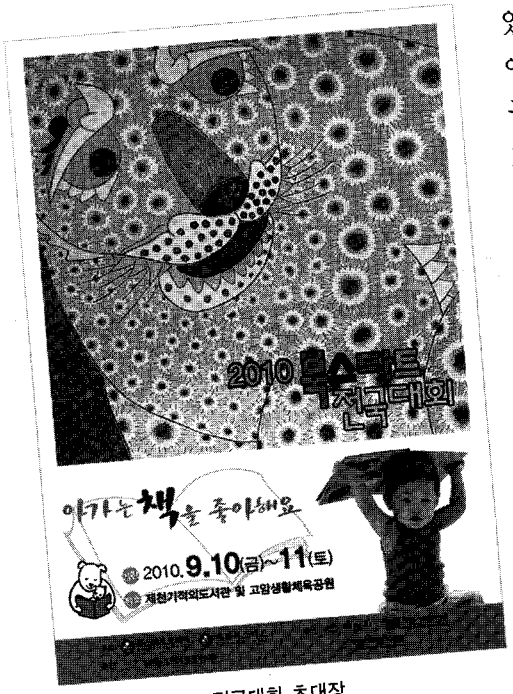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

이 경 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총괄실장
북스타트코리아 상임위원
www.bookstart.org
read3@chol.com

2008 제1회 북스타트 전국대회(서울 SETEC)는 '북스타트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가 주된 목적

한국의 북스타트가 올해로 8년차가 되었다. 북스타트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아가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운동이다. 2003년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2004년에는 중랑구 이외에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2005년에는 1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8년차가 되는 한국의 북스타트, 얼마나 성장했을까? 2010년 8월 현재 전국 228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11개(48%)가 실시하고 있다. 민간의 활동으로서는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함으로써 북스타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탄력을 받고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 초대장

있다. 대구광역시는 교육청이 도입의 주체가 되어 대구에 출생하는 이만오천여 명의 아가 모두에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전달하더니, 강원도는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18개 시·군 전체에서 약 200명의 활동가들이 만이천여 명의 아가를 모두 만나고 있다. 올해는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예산을 합쳐 18개 시·군 전체에서 북스타트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충청북도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북스타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북스타트를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 단체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명확한 목적 설정이 중요했다. 그것은 북스타트의 대상이 모든 지역의 모든 아가라는 것이다. 북스타트는 소외계층만을 위한 운동이거나 여유 있는(도서관에 올 수 있는) 엄마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가들이 그림책을 즐겁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모든 아가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사회가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양육자가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믿음, 우리 모두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양육에서 벗어나야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북스타트 운동의 밑바탕에 있다. 그래서 북스타트는 어느 한 지역이라도, 어느 한 아기라도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0 제2회 북스타트 전국대회(제천)의 주제는 '어울림'

북스타트는 '경쟁'을 지양하고 '다양함'을 존중한다. 북스타트는 연령, 능력, 빈부, 학력, 인종, 지역 차별 등 수 많은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스타트는 지역마다 기관마다 나름대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9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양일간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북스타트 전국대회를 기회로 한 자리에 모여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북스타트 활동의 내용을 서로 나누고 배워가기 바란다.

1. '갈가지' 놀이를 해보자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는 '갈가지'를 소재로 한바탕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아이와 어른들은 호랑이 얼굴, 호랑이 가면, 호랑이 꼬리를 하고 돌아다닌다. 개막식에서 '호랑이담뱃대(제천기적의도서관 자원

활동가 동아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호랑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 제천의 북스타트 공동육아 동아리 엄마들이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책 방을 꾸며 놓고 그 안에서 아가들에게 그림책도 읽어주고 책놀이도 한다. 호랑이 그림 작가와 함께 하는 '엄마도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 호랑이 꼬리 만들기, 호랑이 판화 찍기, 호랑이 팝업북 만들기도 한다. 행사장에서 호랑이 분장을 한 예민한 눈빛의 아이들을 만나면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호랑이 그림책 전시회도 열리고 호랑이 포토존, 호랑이 방명판도 있으니 온통 호랑이 판이 될 것 같다.

2. 자원활동가 어울림 마당

전국 각지에서 무료 봉사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3천여 명의 자원활동가들이 활동 중)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서로를 알게 되고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보람과 고충도 나누는 시간이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다.

3. 다문화 북스타트 세미나

도서관에 올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자원활동가들은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장애 가정, 조손 가정, 오지 가정 등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다문화 가정이다.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들은 일부 결혼이주여성이 심한 아픔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아가도 어렵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어서 이번 대회에서 다문화 북스타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 했다. 고은영(충북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홍민숙(홍천다문화가정지원센터 팀장, 북스타트 담당), 최난희(삼척평생교육정보관 북스타트 담당)가 발표를 하고 다문화 북스타트 활동에 대해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4. 어울려 놀고, 어울려 먹고, 어울려 자자

첫날 저녁 때는 청소년수련관 마당에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강강술래를 한다. 모닥불에 감자와 옥수수도 함께 구워먹는다. 한바탕 놀고 나서 버스를 타고 제천의 야경을 구경하러 밤마실을 나간다. 내보물1호도서관, 한울타리도서관에서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로 밤새 이야기 꽃을 피우고 함께 아침밥도 지어 먹는다. 이튿날 낮에는 제천기적의도서관 앞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소머리국밥을 끓여 나누어 먹는다. 〈돌멩이국〉처럼.

5. 개막식과 폐막식

북스타트 전국대회의 꽃은 개막식이다. 김준호, 손심심 씨가 진행하고 오케스트라 '청'이 음악을 맡는다. 커다란 북을 치며 시작하여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대표와 제천시장이 북스타트 전국대회의 개회를 선포한다. 제주 북스타트 활동가들이 제주 방언으로 '아가 어르는 노래'를 가르쳐 준다. 제천의 아가와 엄마들이 준비한 율동 동요도 들려준다. 폐막식에서는 차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에서 할머니 활동가들

이 동극을 보여주기로 했다. 1회 대회 때 인기 있었던 제천 자원활동가들의 블랙라이트 공연이 이번 폐막식에서 앵콜 공연된다.

6. 도입 설명회

첫날 아침에는 제천기적의도서관에서 '북스타트 도입 설명회'가 있다. 충청북도를 포함하여 내년 도입을 위해 예산 수립을 해야 하는 지자체나 도서관의 담당자가 참여하면 좋은 시간이다.

7. 학술 세미나

제천 북스타트의 자랑은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다. 대원과학대학 유아교육학 교수들이 전문적인 육아정보를 엄마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제천북스타트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대원과학대학의 김수연 교수를 중심으로 준비된 학술 세미나에서는 〈북스타트를 통한 도서관 영아 대상 서비스 확대: 시도와 가능성 – 강정아〉, 〈제천 북스타트의 현황 및 효과성 연구 – 김수연〉, 〈효과적인 북스타트 실천을 위한 그림책 연구동아리의 조직과 활동 – 김문숙〉 등 세 가지의 연구 꼭지를 발표한다.

8. 가방 만들기

북스타트 꾸러미를 구성하는 물품 중에 가방과 가이드북은 민간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진다. 사회적인 육아지원 활동에 여러 기업과 개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북스타트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방 만들기'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9. 전시회

주 행사장(제천기적의도서관) 안에는 권역별 북스타트 전시회도 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북스타트 내용을 사진, 책놀이 소품, 인쇄물로 전시한다. 활동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정성을 다해 만든 물품들이라 아주 귀한 전시물들이다.

그러나 북스타트 전국대회의 핵심은 따로 있다. 바로 사람이다. 엄마 품에 안겨 오는 아기, 가족, 자원활동가, 후원자, 강사, 공무원, 제천 시민 등 모두가 대회의 의미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번 북스타트 전국대회는 주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데 모여, 함께 꾸려가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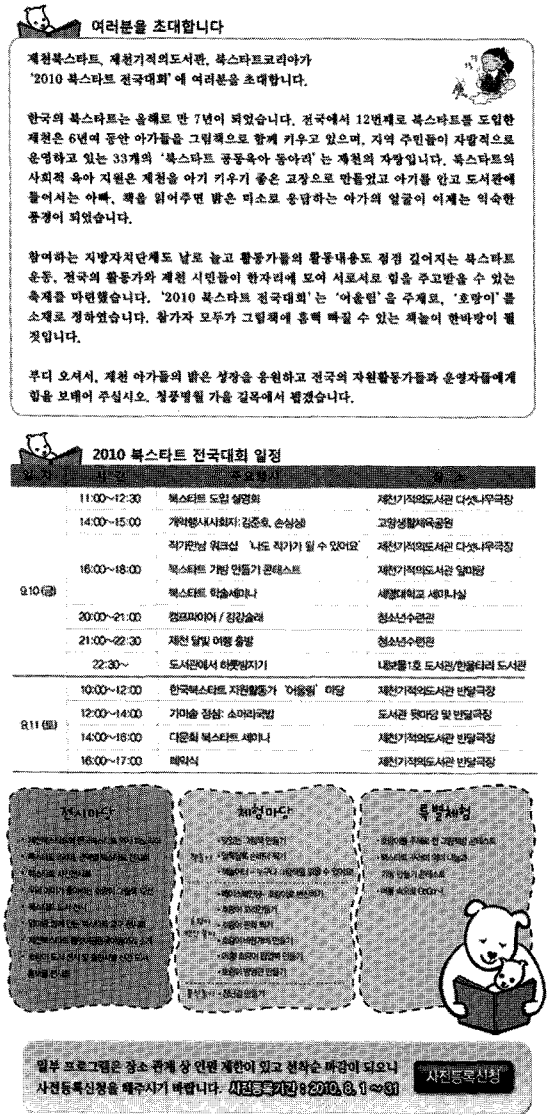
북스타트 전국대회의 향후 방향은 무엇일까?

북스타트코리아가 제1회 북스타트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이 행사를 매년 정례화시켜야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제천북

스타트에서 차기 전국대회의 제천 개최를 희망해서 2009년에 제천시에서는 예산까지 수립하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2010년에 재개하게 된 것이다. 내년 행사 유치는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강원도, 순천시, 김해시 등 희망하는 지역이 속속 나오고 있다.

북스타트는 민간이 주관하는 운동이라서 자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관에서 진행하는 일과 달리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북스타트코리아는 그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행사를 정례화시키지 말고 필요한 시민들과 의논해가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북스타트 전국대회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구(북스타트는 돈벌이에 이용되면 안 된다)나 지역 관료의 생색내기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영국은 매년 '전국 북스타트의 날(National Bookstart Day)'이 있다. 영국의 북스타트는 모든 아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도 가히 국가적이다. 그러나 영국도 민간에서 북스타트를 주관하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천북스타트, 제천가족의도서관, 북스타트코리아가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의 북스타트는 올해로 만 7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북스타트를 도입한 제천은 6년여 동안 아가들을 그림책으로 함께 키우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3개의 '북스타트 공동육아 동아리'는 제천의 자랑입니다. 북스타트의 사회적 육아 지원은 제천을 아기 키우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었고 아기를 안고 도서관에 들어서는 아빠, 책을 읽어주면 밤은 미소로 응답하는 아가의 얼굴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날로 늘고 활동가들의 활동대응도 점점 깊어지는 북스타트 운동, 전국의 활동가와 제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는 '어울림'을 주제로, '호랑이'를 소재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그림책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책놀이 한바탕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셔서, 제천 아가들의 밝은 성장을 응원하고 전국의 자원활동가들과 운영자들에게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청풍명월 가을 길목에서 띄웠습니다.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 일정

일자	시간	주요행사	장소
9.10(금)	11:00~12:30	북스타트 도입 설명회	제천가족의도서관 다넷나무극장
	14:00~15:00	개막행사사회자: 김준호, 손상신	고정성활체육공원
		작가만남 워크샵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제천가족의도서관 다넷나무극장
	16:00~18:00	북스타트 가방 만들기 콘테스트	제천가족의도서관 알마당
		북스타트 학술세미나	세명대학교 세미나실
	20:00~21:00	캠프파이어 / 김강승래	청소년수련관
	21:00~22:30	제천 달빛 여행 출발	청소년수련관
	22:30~	도서관에서 하룻밤지기	내부몰1호 도서관/한울타리 도서관
9.11(토)	10:00~12:00	한국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어울림' 마당	제천가족의도서관 반달극장
	12:00~14:00	기미술 장점: 소마리국밥	도서관 뜰마당 및 반달극장
	14:00~16:00	다문화 북스타트 세미나	제천가족의도서관 반달극장
	16:00~17:00	폐막식	제천가족의도서관 반달극장

전시마당

체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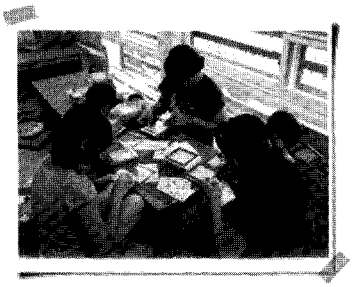
특별체험

일부 프로그램은 정소 규모 상 인원 제한이 있고 선착순 마감이 되오니 사전등록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기간 : 2010. 8. 1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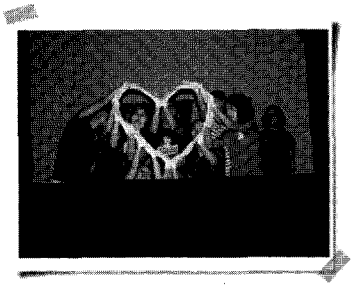
사전등록신청

▲2010 북스타트 전국대회 일정

▲그림책방 콘테스트 준비 중



▲체험마당(손바닥찍기) 액자틀 제작 중



▲폐막공연 〈블랙라이트〉 공연 연습 중

매년 날짜와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의 '전국 북스타트의 날' 은 6월 11일이었고 올해의 테마는 '해변에서(At the seaside)' 였다. 2007년 행사의 테마는 '정글 파티(Jungle party)' 였고, 2008년에는 '해적' , 2009년에는 '내가 좋아하는 운율' 이었다.

영국에서는 한 곳에 모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국 수천 곳의 도서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한국의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비슷한 단체인 북트러스트(Booktrust)에서 올 해의 테마를 정하고 각종 활동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면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와 내실을 다지기 위한 소통을 위해 향후 몇 년간은 일 년에 한 번 혹은 이 년에 한 번 정도 한 자리에 모이는 축제의 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전국 확산이 실현되면 전국 단위의 소통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축제 형식의 전국대회는 영국처럼 지역마다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이번호 '인터뷰' 는 지면관계상 쉽니다.